

기고

안재준 담양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과 대응·복구를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소방 후배들을 볼 때 매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도민들의 협조이다.

30년 이상의 소방관 생활을 하다보면 언론의 사건, 사고를 더 관심있게 보게되고 주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다.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되고 구조구급 상황은 위험상황까지 치달게 된다.

소방통로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즉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시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화재시에는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소방이 다루는 영역인 화재, 구조, 구급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소방관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가 결정된다.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최단시간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소방관사에서는 매일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을 나가면 현장까지 5분내 도착하기란 그리 녹록치 않다. 주택 골목은 소방차가 통행하기에 턱없이 비좁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이중주차는 소방차

를 계속 멈춰서게 만든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비좁은 골목길로 소방호스를 끌고 백미터 이상 달려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한다.

30년 이상의 소방관생활을 하며 출동시 마다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

기존 소방청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화재현장 소방차량 도착 시간 대비 사망자 발생률을 살펴 보면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10분 초과시 5분~10분 이하보다 2.5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 및 이웃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길을 터주어야 한다.

주택가 등 협소한 도로는 승용차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양면에 주정차하여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해 화재를 대형화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도 있는 일이다.

이에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 요령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첫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한다.

넷째,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소방차는 1차선으로 통행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1, 3선으로 양보, 소방차는 2차선 통행한다.

여섯째, 횡단보도에서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일곱째,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좁은 골목이나 모퉁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등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니 우리 모두 '소방통로 확보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해서 안전하고 밝은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社說

삶의질 제고로 정책 전환해야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을 높이면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주된 이유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빈곤 및 불안정한 소득' 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빈곤 및 저소득층 지원' 등(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민심을 반영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遐邇 遐邇 壹體

遐邇 壹體

▷ 뜻: 멀고 가까운 나라가 전부(全部) 그 덕망(德望)에 귀순(歸順)케 하여 일체(一體)가 될 수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

겨울철에는 난방이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히 각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전기 매트, 온풍기 등 난방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이맘때쯤 되면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을 위해 난로·전열기구 등의 사용도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실제로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화기취급·각종 활동들이 주택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침시간에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 대응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택에서 사망자의 발생이 높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 이후 주택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2~2017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율이 높으면 화재 저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외국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설치율을 끌어 올렸고 그 결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미국은 2010년 96% 설치율로 32년간 56% 화재 사망자 저감, 영국은 2011년 88% 설치율로 22년간 54% 화재 사망자 저감, 일본은 2014년 80% 설치율로 6년간 12.4% 화재 사망자 저감효과를 봤다.

최근 소화기와 주택 화재 경보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화재 피해

를 경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화재 시 소방서에서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소중함 주택용 소방차인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하는 건 가장 빠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배영규 / 나주소방서 소방장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Women's Welfare Foundation.